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5월 전반기에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며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숲의 청량한 숨결이 담긴 담양에서부터 초록으로 물들인 보성의 처발, 살아있는 듯 생생한 공룡을 만나 볼 수 있는 해남, 수현만 풍어의 장미로 물든 곡성, 봄꽃 가득한 장성 등 남도의 축제는 자연과 함께 빛난다. 여기에 여수의 바다는 이순신의 기개를 품은 채 푸른 축제의 장을 열어 단숨에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역사와 숨결까지 체험할 수 있는 등 남도에는 풍성한 5월이 준비돼 있다.

5월 남도는 '축제의 무대'



△대나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담양대나무축제'
5월 1일부터 5일까지 죽녹원과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펼쳐지는 담양대나무축제는 올해로 25회째를 맞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드론 라이트쇼가 가장 먼저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오프닝밴드·알리 등이 참여하는 '대숲 영화관' 공연, 대나무 카누 체험, '맛이 죽(竹)여 주네' 음식경진대회 등이 준비돼 있다.
인근 메타세콰이아길과 관광제원은 대나무축제와 함께 꼭 즐겨야 할 지역의 대표 관광지다. 보고 듣고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국수거리에서 불국수와 비빔국수는 필수 코스다.
올해는 담양의 새로운 활력을 상징하는 '관광 캐릭터 선 포식'도 열린다.
특히 야간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돼 죽녹원 일대에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이 설치되고 야간 개장을 통해 낮과는 다른 신비로운 대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초록빛 처발에서 즐기는 '보성다향대축제'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차 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보성 그랜드 티파티와 찻잎 따기, 차 만들기 체험, 보성 티마스터링, 데일리 디제 시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 주변에 율포솔밭해수욕장과 해수차센터에서 차 운증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대향다원 등 인근 사유 차밭의 풍경도 절경을 이루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오후의 처발'이라는 특별 예약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3가지 보성 차와 논알뜰 먹소리지 음료, 다식을 코스로 즐기는 티파티가 축제의 품격을 높인다. MZ세대를 겨냥한 '차(Tea)지킴 100' 등 이색 게임형 콘텐츠도 추가됐다.

담양대나무축제·보성다향대축제, 1~5일 'MZ 겨냥' 체험 행사·콘텐츠 풍성
안도해조류박물관, AI 활용 미디어 터널·호국정신 기리는 여수거북선축제
장성 향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곡성세계장미축제, 낮보다 화려한 야경 선사

열길날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고,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용줄다리기'와 '소동줄놀이'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며, 거북선 만들기 경연대회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갖는다.
△기후위기의 해답을 해류서 찾는 '2026 Pre안도국재해조류박물관'
5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원도 해변공원과 안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를 주제로 2026 Pre안도국재해조류박물관이 열린다.
'2028 안도국재해조류산업박람회'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 마련됐지만 올해 상사 자체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미디어 터널 '해저로의 초대', AI 캐릭터 생성 체험 '오션 스타', 3단계 몰입형 주제 영상 쇼 등이 준비돼 있고, 주변 콘텐츠로 원도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다도해 전경, 정보음료 60회를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동제



오색향연 즐기러 떠나자

열 개 달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공연과 음악회가 이어지며, 대형 공연 조형물 사이로 펼쳐지는 드론 쇼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설렘의 꽃길 '곡성세계장미축제'
계절의 여왕 5월 꽃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행사인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곡성 삼진강가차마을에서 펼쳐진다. 24만7933.8㎡(7만5000평) 장미공원 전지와 로즈 카니발 페스티벌, 골드로드 야간 공연 등이 5월의 낭만을 풍성하게 만든다.
축제장의 평원인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를 이용해 섬진강 변을 달릴 수 있다. 올해 테마는 '열여섯, 정미사촌기다'. 청춘의 설렘을 담은 포토존을 강화하고, 축제 기간 내내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등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밤 조형물과 어우러진 수현만 송이 정미의 향연은 낮보다 더 화려한 야경을 제공한다.
△강원도에서 즐기는 꽃의 향연 '장성 향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향룡강 일원에서 장성 향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열려 봄꽃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설렘을 충족시킨다.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는 주요 행사는 향룡강 꽃길 걷기와 꽃길 열차 투어, 버스킹 공연, 추억의 보물찾기 등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필암서원과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축령산 산소길(가까운 곳에 위치해 축제와 함께 즐

길에 충분하다.
올해는 '향룡강 봄꽃을(春)을 주제로 음악과 꽃의 결합을 시도했다. 강변 곳곳에 소규모 공연 스테이지를 배치해 꽃길을 걷는 내내 라이브 음악이 끊이지 않도록 기획했으며, 야간 경관 조형물 활용한 '달빛 꽃길' 산책로가 새롭게 조성됐다.
△희망의 나비와 함께 날아오르는 '함평 나비대축제'
24일 개막한 함평 나비대축제는 5월 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즐길 수 있다.
동심을 자극하는 아이 나비 날리기 체험, 생애 곤충 관람, 나비 열차 운행 등을 즐길 수 있고, 행사장에 마련된 함평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우수 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축제장 인근에 들머리해수욕장과 함평 비빔밥 거리 위치해 나초와 육회비빔밥을 함께 할 수 있는 등 전반기 행사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28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실내 전시 콘텐츠는 디지털화 해 VR 곤충 체험 등을 도입했다. 특히 나비 날리기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며, 관람객이 직접 걷는 나비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친환경 캠페인 성격이 강화돼 축제를 즐기는 재미를 배가시켰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1 함평나비대축제 나비 만타지아 퍼레이드
2 장성 향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장
3 보성다향대축제
4 곡성세계장미축제
5 해남공룡박물관 전경

1 담양 대나무축제 뗏목타기
2 제58회 거북선축제 동제중앙놀이
3 원도국재해조류박물관 인돌 길 뜨기 체험
4 원도국재해조류박물관 전시관 조감도

